

The Next Era: Secure First

미래 보안 비전

Secure First, Then Connect

먼저 보안을 적용하고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연결하는 것
“Secure First, Then Connect”
펜타시큐리티가 제시하는 미래 보안 비전입니다.

20 years, Penta Security Systems

펜타시큐리티 창립 1997년 당시 보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안다고 해도 회사의 전산 담당자일만큼
보안은 제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Trust for an Open Society

펜타시큐리티는 무언가를 막고 제한하는 보안이 아닌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보안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Encryption

펜타시큐리티의 시작은 보안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기술
바로 암호 기술이었고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Web · Data · IDentity

펜타시큐리티는
웹 보안, 데이터 보안, 인증 보안
큰 세 가지 흐름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WAPPLES · D'Amo · ISign+

웹 보안은 와플, 데이터 보안은 디아모, 인증 보안은 아이사인플러스
세 가지 제품 개발로 이어졌고
꾸준히 성장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Asian Cyber
Security Vendor
of the Year



No.1 WAF
Vendor in the
APAC region



SC Magazine Europe
Best SME Solution



Hot Company in
Web Application
Security for 2016



The first and only
CCEAL4 certified WAF



ICSA Labs
Certified
WAF

Gartner

Recognized on the
Gartner WAF
Magic Quadrant



PCI-DSS
Compliance

이 제품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와 전산을 보호하며
기업 보안의 필수 요소가 되었고
펜타시큐리티는 세계 보안 시장의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he Next Era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와 전산을 지켜주는 정보보안의 리더로서
보안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T

security

이제까지 보안은 IT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안은 네트워크에 컴퓨터들을 연결시키고
이후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습니다.

IT — **SECURITY** — **Car Energy**
City Factory Farm
Port Home

이제 보안은 IT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력, 공장, 집, 도시, ...
모든 곳에 보안이 필요합니다.

IT – SECURITY – Society

모든 것이 지능화되고 연결되어 가고 있는 지금
보안은 IT와 대등한 중요도를 가지고
IT와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Secure First

우선 네트워크에 연결한 이후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보안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연결에 앞서 보안을 먼저 적용하여
사회 인프라 속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 때, 지능을 부여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Secure First, Then Connect

먼저 보안을 적용하고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연결하는 것
“Secure First, Then Connect”
펜타시큐리티가 제시하는 미래 보안 비전입니다.

Secure First



Secure First, Then Connect

다가올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가 펜타시큐리티가 걸어갈 길입니다.

펜타시큐리티 창업자 이석우 사장







대한민국 DB암호화의 시작과 완성, D'Amo

13년 전 DB암호화 시장을 만들었고, 가장 앞서 달려왔습니다.



Penta SECURITY
cloud · iot · enterprise

20
year Anniversary